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마르코 알바라도, 징그러움을 추구하는 에콰도르 현대 미술가

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1962년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태어난 마르코 알바라도(Marco Alvarado)는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한 화가이다. 마르코 알바라도는 ‘미술공장’ 그룹에 참여할 때부터 어느 범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매우 이질적이고 또 사회비판적인 작품을 창작했으며, 이로써 에콰도르 미술계에서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후안 카스트로 이 벨라스케스(1947년 과야킬 생)가 과야킬 소재의 ‘중앙은행 미술관 인류학박물관’¹⁾ 큐레이터로 취임했을 때, 후안 호세 플라사 시립 미술학교의 학생 5명을 받아들였다. 다섯 명의 학생은 플라비오 알라바(1957년 과야킬 생), 페드로 다빌라(1959년 과야킬 생), 하비에르 파티뇨(1961년 과야킬 생), 마르코스 레스트레포(1961년 카타라마 생), 호르헤 벨라르데(1960년 과야킬 생)였다. 후안 카스트로는 이 학생들이 아직은 젊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작업실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구매한 서적과 현대 작품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1981년에는 화랑 소유주인 마텔레이네 올라엔데르가 이 학생들의 작품 초대전을 개최했다(당시 화랑은 오로 베르데 호텔에 있었다).

1) 이 기관의 명칭은 2009년에 현대미술관 인류학박물관(Museo Antropológico y de Arte Contemporáneo)으로 바뀌었다—옮긴이.



마르코 알바라도, 「실종자 또는 실종자를 위한 성의(오늘의 고기메뉴)」(1983년 작. 사진, 3.5x2.4cm, 거즈, 천으로 끈 줄, 계피, 정향, 아니스 씨앗)

조금 후에는 후안 카스트로가 미술인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그룹에는 앞서 언급한 다섯 명의 학생 외에도 마르코 알바라도, 파코 쿠에스타(1953년 과야킬 생)가 참여했다.

과야킬 가톨릭대학교 건축학과를 중퇴한 마르코 알바라도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지도교수인 호세 비센테 비테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테리 교수가 마르코 알바라도의 재능을 발견하고, 호세 카스트로 교장에게 소개한 것이다.²⁾

알바라도가 이 초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바로 「실종자 또는 실종자를 위한 성의(오늘의 고기 메뉴)」이다. 이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종의 성의(聖衣)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현현한 인물은 제목이 가리키듯 실종자이다. 마르코 알바라도는 반쯤 벗은 친구의 사진을 찍어서 흐릿하게 만듦으로써 익명의 실종자 이미지를 만들었다(실종자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실종된 것은 아니다). 실종자의 육신은, ‘오늘의 고기 메뉴’라는 작품의 부제가 설명하고 있듯이, 식인의식의 대상, 즉 먹을 수 있는 고기이다. 올메도 알바라도(1955년 쿠엔카 생)가 1996년 ‘제5회 쿠엔카 비엔날레’ 개막식에 맞춰 일종의 대안적인 행사로 강에 설치한 십자가상처럼, 마르코 알바라도도 이미 1983년에 잡지 『오브제 메뉴』에 실은 위 작품을 통해서 중남미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실종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마르코 알바라도가 작품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84년 독재자 레온 페브레스 코르데로(León Febres Cordero)가 집권함으로써 심각한 인권탄압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만행의 실태는 2010년 5권으로 발간한 『2010 에콰도르 진실규명위원회 보고서: 진실 없이는 정의도 없다』에 잘 드러나 있다.

2) 유명한 미술비평가 에르난 로드리게스 카스텔로(1933년 생)는 마르코 알바라도를 가리켜 에콰도르 개념미술가 가운데 가장 흥미 있는 작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야킬 그룹[‘미술공장’] 개념미술가 가운데, 아니 에콰도르 개념미술가 가운데 가장 통렬한 작가를 꼽는다면 바로 마르코 알바라도이다. 알바라도의 설치미술(「검은색 구아구아 빵의 죽음」 검은색 모서리의 탁자에 하얀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 검은색 장식무늬가 있는 하얀 관에 검은 인형을 넣은 작품)은 마술 같기도 하고 종교 같기도 한 이상야릇한 의례가 혼합되어 있다. 이후 마르코 알바라도는 페티쉬를 통해서 종교적인 것을 개념적으로 파고 들었다. 종내에는 그림과 콜라주를 과감하게 뒤섞음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의 고통을 드러냈으며(「피, 시멘트, 먼지」), 번들거리는 색깔과 찢어진 스케치를 통해서 현실적인 것에 침투하려고 하였다.(Hernán Rodríguez Castelo, *Panorama del arte ecuatoriano*, Quito: Ministerio de Educación y Cultura, 1993, p. 155.)



마르코 알바라도, 『국가정체성』(1985년 작, 문장이 빠진 에콰도르 국기, 십자가, 주석으로 만든 봉헌물, 동전, 장난감, 돌돌 만 지폐, 성화, 목걸이 성화, 무공훈장, 155 x 195cm)

마르코 알바라도는 초기 작품부터 국가 상징과 대중문화를 표현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 이를 통해서 지배계급이 국가 문제를 조작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경향을 웅변하는 작품이 바로 대표작으로 꼽는 「국가 정체성」(1985년 작)이다. 당시는 앞서 언급한 페브레스 코르테로 정권의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으므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작품은 에콰도르 국가문장이 빠진 국기 위에 십자가상, 주석으로 만든 봉헌물,³⁾ 동전, 조그만 장난감, 돌돌 말린 지폐, 종교화, 성화, 군인 훈장을 걸어놓고 있다.

나중에 알바라도는 한 번 더 파티뇨, 레스트레포와 함께 활동하는데,

3) 봉헌물(exvoto)이란 네모난 종이에 그린 하느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성자의 그림을 뜻한다. 다른 의미도 있는데, 질병이 나은 사람이 신체 부위(팔, 다리, 심장 등)를 금속(금, 은, 동, 주석)으로 만들어 성당에 안치해놓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윤킨이.

이때 주제는 대중의 참여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바라도, 파티뇨, 레스트레포는 마텔레이네 올라엔데르 화랑에서 3일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차례차례 등장했다. 첫 날의 주인공은 파티뇨였다. 파티뇨는 화랑 벽에다 액자에 넣은 성모상 36점을 전시했다. 다음 날에는 성모상을 철거하는 동안 알바라도가 모든 전시 공간을 버드나무 가지로 채웠다. 그리고 한 면이 240cm에 달하는 직사각형 캔버스로 전시실 한쪽 벽을 완전히 뒤덮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피(혈액원에서 구한 썩은 피)를 바르고, 그 앞에다 불에 탄 텔레비전 수상기를 조명처럼 달아놓았다. 마지막 날에는 알바라도의 작품을 떼어낸 후에 레스트레포가 전시회 관람객인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물감과 이젤을 놓아두었다.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은 1987년에도 과야킬에서 ‘길거리 예술’ 행사를 벌였다. 이때는 몇 사람이 더 참가했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오래 머물다가 갓 귀국한 플라비오 알라바를 비롯하여 하비에르 블룸, 후안 곤살레스, 호아킨 세라노, 마우리시오 수아레스 반고, 루키 삼브라노였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침울했으므로 ‘길거리 예술’은 유희적 성격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센테나리오 공원에서 천으로 만든 공을 많이 던져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도 공을 던질 수 있게 하였다.

알바라도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선언문을 작성했다. 당시 알바라도와 가장 친한 동료(파티뇨, 레스트레포)와 여러 차례 같이 작업했지만 「벽보」(Pasquín)의 집필을 책임진 사람은 알바라도였다. 「벽보」는 타자기로 작성한 6장짜리 문건인데, 마지막 장은 사라지고 없다. 알바라도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보면 마지막 장에 몇 군데 수정한 곳이 보인다. 아무튼 통렬한 필치로 작성한 이 문건은 에콰도르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생명이 결코 입을 다물지 않았듯이 우리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식인종인 우리는 예전의 허황된 얘기를 물려받지는 않았다. 우리는 만물이다. [...] 여기 우리가 있다. 우리 남자와 여자는 무기력한 대중도 아니며, 무감각한 로봇도 아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보면 메스티소이며, 사회 상황으로 보면 원주민이다.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사랑한다. [...] 우리는 아름답

답고, 대지의 색깔과 붉은 강물 색깔을 띠고 있으며, 시선에는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마르코 알바라도가 식인종과 동일시한 것은 1920년대 브라질에서 전개된 식인운동주의 운동과 유사하다. 마르코 알바라도의 초점은, 아메리카 대륙 예술가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려는 것인데, 더 이상 예술가는 복화술사의 손에 놀아나는 인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인형은 남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코 알바라도는 비판적 도구로서 징그러움을 도입하고 있다.



마르코 알바라도, 「성자」(「괴물은 우리다」 연작, 2007, 디지털인쇄, 120 x 160 cm)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회화 기법에 능통한 마르코 알바라도는 잇따라 다양한 연작을 창작함으로써 날카로운 사회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감수성은 시각적인 기괴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종종 일반적인 미의 개념에 대한 테러로 보인다. 이런 작품 경향은 콜라쥬라든가 설치미술 같은 회화 작품은 물론이고, 에콰도르 디지털예술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2007년 전시회(과야킬 현대미술관 인류학박물관에서 개최) ‘괴물은 우리다’에서도 나타난다.⁴⁾

마르코 알바라도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주민의 문해교육을 위한 그림이었는데, 이 시기에 알바라도는 원주민의 의례에 정통하게 되었고, 봉헌물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검은 색 구아구아 빵의 죽음」(La muerte de la guagua negra de pan, 1983)⁵⁾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 이어서 「자기 시복(諡福)」(Autobeatificación, 1983)과 같은

4) 2007년 마르코 알바라도의 작품 전부를 수록한 도록이 발간되었다(Monstruos es que somos. Guayaquil, MAAC, 2007). 이 도록에는 큐레이터 마틸데 암푸에로의 해설이 실려있다.

5) 구아구아 빵: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 지역민이 일종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빵이다. 이 빵은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돌돌 감아놓은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아구아(‘갓난아기’라는 뜻)라고 부른다—울김이.



마르코 알바라도, 「타르실라의 봉헌물」(2010~2011) 타르실라의 손자 그림을 마르코 알바라도가 복사. 목판에 에나멜.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1980년대 중반에 알바라도는 몬투비아 원주민(에콰도르의 태평양연안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작업실을 만들어 원주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작품을 창작했다. 예를 들어, 봉헌물을 만들 때 몬투비아 원주민은 외지인에게 땅을 빼앗을 때의 아픔을 글과 그림에 담아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알바라도는 구아야스 지방에서 벌인 ‘희망 사업’에 참여하고, 2010년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과야킬 현대미술관 인류학박물관에서 ‘볼리바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문가, 농민지도자, 농민, 변호사가 참가하여 시몬 볼리바르에 관하여 토론하고, 에콰도르 농업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도 기여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산타 엘레나 지방에서도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개인 명의로 일련의 풍경화를 작업했다. 마지막으로 알바라도는 과야킬과 바예니타에서 청년 4명, 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함께 사는 소외된 남성 1명과 함께 ‘에콰도르라고 부르지 않는 먼 국가에서 활동한 무명의 해방자에 대한 흑인여성의 이야기를 위한 노래와 봉헌물’(Exvotos y corridos para Crónicas de Negras de un libertador desconocido en un país muy lejano que no se llama Ecuador)이라는 작업을 기획하고, 이를 2011년 과야킬의 세미나리오 공원에서 전시했다.

마르코 알바라도는 아메리카 대륙 화가가 당면한 복잡한 상황을 증거하려고 작업 수단으로 징그러움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 시장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기획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마르코 알바라도의 작업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병규 옮김]

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 마드리드자치대학교(UAM) 문학박사. 현재는 에콰도르 쿠엔카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교수.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